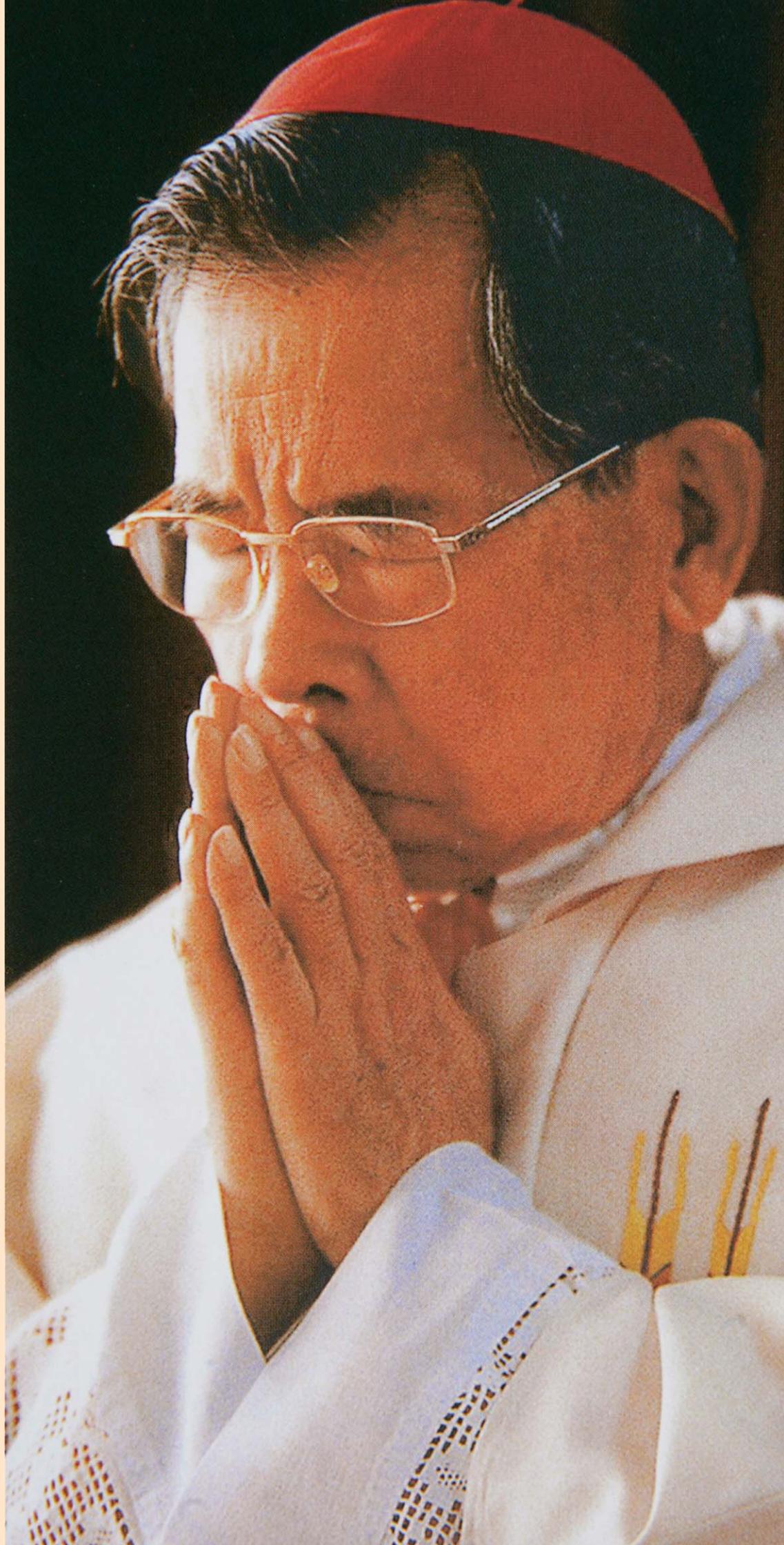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는 2009년 2월16일(월) 오후 6시12분, 노환으로 강남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2월20일(금) 오전 10시에 주교좌 명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으며, 용인 성직자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2월22일(일) 낮 12시, 명동성당(집전: 정진석 추기경)과 용인 성직자 묘역(집전: 염수정 주교)에서 추도미사가 있습니다.

교구 산하의 모든 성당과 각 기관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을 위해 연미사 1대를 봉헌해 주시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위한 기도문' (별지 4면 참조)을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 양떼를 사랑한 목자 -

요즘 병세가 위독한 선후배 신부님들에게 병문안을 가면 귀에 바싹 대고 이런 말을 되풀이 한다. “하느님한테 말기세요. 하느님한테 모든 걸 다 말기세요.” 이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점도 후회스럽다. 좀더 몸을 낮추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야 했는데… 부족함 점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그런데도 하느님은 내게 분에 넘치는 은총을 내려 주셨다(평화방송 평화신문,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1922년 5월 8일 대구 출생(음력)
- 1933년 성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 입학(대구)
- 1941년 3월 서울 동성상업학교(현 동성고등학교) 을조(乙組) 졸업
- 1941년 4월 일본 조치(上智)대학교 입학
- 1944년 1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학업 중단
- 1947년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편입
- 1951년 9월 15일 사제 수품, 안동성당(현 목성동성당) 주임
- 1953년 4월 대구대교구 교구장 비서
- 1955년~1956년 김천성당(현 황금성당) 주임 겸 성의중고등학교 교장
- 1956년~1963년 독일 유학,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전공
- 1964년~1966년 가톨릭시보사(현 가톨릭신문) 사장
- 1966년 5월 31일 주교 수품, 마산교구장 착좌
- 1968년 5월 29일 대주교 승품, 제12대 서울대교구장 착좌
- 1969년 4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추기경 서임
- 1970년~1975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1차 역임)
- 1975년~1998년 평양교구장 서리 겸임
- 1981년~1987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2차 역임)
- 1998년 5월 서울대교구장 및 평양교구장 서리 퇴임
- 2009년 2월 16일 선종

우리 시대의 큰 어른,

한국 가톨릭교회 최초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은 평생의 삶을 통해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라는 자신의 사목 표어를 실천해 온 하느님의 목자였습니다.

매사 겸손함을 잃지 않는 후덕한 인품으로, 가난한 이, 소외된 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친구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인간 존엄성’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는 인자한 ‘혜화동 할아버지’로서 노인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든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세상을 향한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노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소와 인간미를 잃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강조했던 김수환 추기경. 그분은 이제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여행을 마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분의 향기는 여전히 커다란 빛과 소금이 되어 영원히 가슴마다 파도 칠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한테 모든 걸 다 말기’ 떠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도록 기도합니다.



▲1934년,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
예비과 학생시절(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1951년, 사제서품식 후
(오른쪽 어머니)



▲1951년, 군종신부로 입대하는
형님 김동한 신부와 함께



▲1968년,
서울대학교 대주교 착좌



▲1969년, 추기경 서임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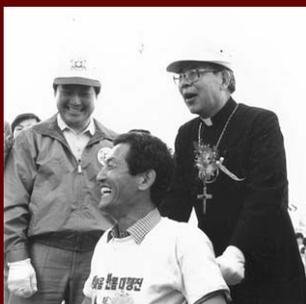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과
8·3 긴급 조치에 대한 메시지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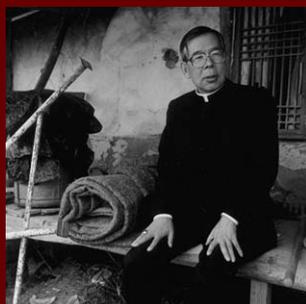
▲1985년, 사북탄광 현장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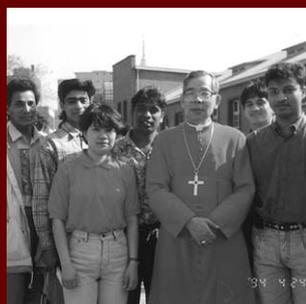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1990년, 장애인을 위한
'한마음 한몸 대행진'



▲1993년, 생가방문
(경북 군위군)



▲1994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미사 후



▲1994년, 서울 구치소 방문



▲1996년, 독도 위로 방문



▲1998년, 행당동 철거민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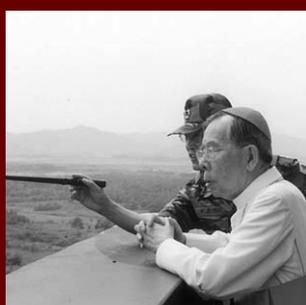
▲1999년, 전국 고등부 가톨릭 학생
대회 참가 학생들과 함께



▲2000년, 청주 꽃동네 방문



▲2001년, 성심수녀회 만찬



▲2003년, 민족화합의 대미사 후
도라산역 전망대에서



▲2005년, 성 라자로 마을에서
성체거동 미사



▲2006년, 정진석 추기경 서임 발표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애도하며...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지난 2월 16일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 품안에서 선종하셨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통해 하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서 김수환 추기경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항상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빛과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모든 한국인의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서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김 추기경님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노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와 인간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향해 외치셨던 메시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해였습니다. 평소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바라던 대로 이 땅에 평화와 정의가 넘치도록 마음을 모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성자인 김수환 추기경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친히 주님의 일꾼 김수환 추기경을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우니 굽어보시어,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세상을 떠난 김수환 추기경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위한 기도

- †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을
하느님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나이다.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여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우시어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남아 있는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인준)